

OMENTUM

TOO, IS A MAP

TOGETHER

AS

TO GATHER

UL MEDIA CITY
BIENNALE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소식지
2023년 6월호

외교술

외교술로서의 비엔날레

1764년 한 외교관이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다.

에도(현재의 도쿄)로 향하던 조선통신사 일행 중 하나가 통역관이었던 일본인 하급 무사 스즈키 덴조와 다투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다. 당시 에도 막부는 차일피일 수사를 미루었고, 그러는 동안 이 사건은 일본 사회 안에서 회자하며 가부키나 교겐 등의 전통극으로 다루어졌다. 이로부터 250년이 지난 2014년,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귀신 간첩 할머니》의 참여작가 타무라 유리치로는 이 사건을 다룬 영상설치 작품 〈世話料理鱸包丁[세와료리스즈키보초]〉(2014)를 선보였다. 작가는 일제강점기에 고등재판소였던 현재의 서울시립미술관 건물 안에 당시의 법정 공간을 재현하고, 관련한 소품들과 2채널 영상을 설치하였다. 가상의 법정에는 농어(일본어로 스즈키)를 손질할 수 있는 식칼, 도마, 냉동고와 더불어 이 살인사건을 다룬 가부키 공연 장면을 기록한 영상과 식칼 제작을 장인에게 의뢰하고 그 칼로 농어를 손질하는 영상이 재생되었다. 타무라 유리치로는 하나의 사건이 풍자와 재현으로 이어지는 예술-현상을 일종의 삶의 기술로서 제시한 것이다.

외교적 사건이 전통극과 현대미술로 반복되어 나타나고 이들이 비엔날레라는 국제교류 전시를 통해 소개된다는 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날의 예술적 실천을 바라보는데 ‘외교’를 하나의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유교문화권의 행정기관 명칭 중 하나였던 ‘禮예’는 문화·교육 분야와 더불어 외교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가리켰다. 동아시아 지식인 관료들에게 있어서 국가 간의 교류는 인민 사이에서 형성된 문화 규범이나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전승되는 지식을 다루는 업무와 더불어 한 카테고리 안에서 관리되어야 한다고 여긴 모양이다. 관례, 혼례와 같은 단어가 모두 이 한자를 쓰며, 넓게 보면 전시도 하나의 ‘예’로서 무형의 가치를 높이 기리는 의식과 같다. 이처럼 외교가 문화와 교육과 한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현상은 세 분야가 모두 ‘관계를 다루는 기술’이라는 점을 떠올린다면 이상한 일이 아니다.



타무라 유리치로, 〈世話料理鱸包丁[세와료리스즈키보초]〉, 2014
책상, 의자, 칼, 도마, 냉동고 등 부엌 오브제, 2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가변 크기(설치); 20분 30초; 19분 23초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커미션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14

이문석

비엔날레에서도 관계를 다루는 기술, 일종의 외교술이 동반되곤 한다. 그것은 단지 국제심포지엄이 열리고, 수많은 외국인 작가가 참여하고, 여러 대사관으로부터 후원을 받기 때문만은 아니다. 비엔날레가 국가와 지역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세상이 도래하길 상상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관계적 형태를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이번 소식지에 초대된 필자들은 노르웨이의 모스라는 도시에서 열리는 제12회 모멘텀비엔날레 《모이기 위해 함께 하는(Together as to gather)》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안무가 존 리는 “어디서 왔느냐”는 인사말로부터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질문하고, 정치학자 씨시 푸는 〈대사관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과 그 교류의 현장이 되는 저녁 식사를 조망한다. 이 모두는 국제교류가 빚어낸 새로운 관계망의 창출을 얘기하고 있다. 김홍희 전 서울시립미술관 관장은 SeMa 난지창작스튜디오와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미술관이 스스로의 관행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게 만드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다양한 배경의 예술적 실천을 경험하는 비엔날레 관객들은 자신만의 경계를 가로질러 새로운 관계의 형태, 자신만의 외교술을 상상하게 된다.

개인에게 외교술을 부여하는 힘, 즉 타인과 교류하게 만드는 힘은 비엔날레에 초청되는 여러 형태의 콜렉티브와도 관련된다. 지난 25년간 비엔날레에는 총 146팀의 콜렉티브가 참여했는데, 이 중에는 비엔날레를 위해 일시적으로 결성된 팀도 있다. 가령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에 참여한 C-U-T는 현대미술 작가이자 교사로 활동하는 밍 웡이 매니저 역할을 맡고, 스웨덴의 스톡홀름왕립예술학교의 학생 여섯 명과 일시적으로 구성된 콜렉티브이다. 이들은 케이팝의 팬덤 문화, 세계관 형성, 제작 방식 등 특성을 연구하여 새롭게 창작한 음악, 뮤직비디오와 인터뷰 영상으로 구성된 작품 〈KALEIDOSCOPE〉(2021)를 선보였다. 기존의 아이돌 그룹과 달리 초국적이고 쿨어 친화적인 문화를 가미하여 케이팝의 문법을 확장한 이들의 시도는, 각종 경계를

가로지르고 관계의 기술을 창출하는 새로운 상상력을 보여주었다.



C-U-T, 〈KALEIDOSCOPE〉 스틸, 2021
복합 매체 설치, 비디오, 컬러, 사운드, 4분 16초, 5분 30초

일본어로 ‘생선을 손질하는 일’과 ‘재판’은 모두 ‘さばく [사바쿠]’라고 한다. 사물과 사건을 다듬어서 정리하는 일, 관계로 얽힌 형태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일, 이것은 비엔날레에서 항상 벌어졌고, 지금도 벌어지는 일이다. 예술가들이 이합집산하면서 만들어내는 관계적 형태, 즉 작업들은 국가와 사회의 경계에 대한 상상력에 있어 길항작용을 일으키는데, 이 과정에서 미술관은 대사관이 되고, 작가나 기획자는 대사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엔날레를 외교술의 일종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문석은 시각문화 안에서 국가와 개인을 매개하는 사회적인 것이 어떻게 재현되는가 관심을 가지고 이와 관련한 글을 쓰며 기획을 한다. 2019년부터 기획자 박유진과 동(남)아시아의 사회참여예술가와 교류하는 《Against the Dragon Light》를 진행하고, 2021년부터 기획자 이슬비와 전시공간 미학관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하루하루 탈출한다》의 프로젝트 매니저를 거쳐, 현재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의 어시스턴트 큐레이터로 근무 중이다.

집짓기로서의 모멘텀

2022년 11월, 나는 제12회 모멘텀비엔날레의 큐레토리얼 콜렉티브 텐트하우스가 비엔날레에 참여하는 큐레이터와 예술가 그리고 디자이너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에 초대받아 Galleri F15를 찾았다. 그곳에서 수평적 구조를 토대로 상호의존과 자율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텐트하우스의 실천 양식에 곧 눈길이 끌렸다.

이곳에서도 첫 만남의 어색함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단골 질문 “어느 나라 분이세요?”는 피해 갈 수 없었다. 이럴 때 나는 국적으로 보나 역량으로 보나 명백한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미국, 베를린을 오가며 자란 탓에 미국 문화에 대해 괴리감을 느낀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만다. 한국 태생일 것이라 짐작하는 이들이 많기에, ‘집’에 돌아가서 느끼는 복잡미묘한 마음에 관해서도 설명한다. 덧붙여 내 기억 속의 첫 문화는 세월과 더불어 많이 변했으며 나 또한 그렇다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와 뉴욕에서 유년기를 보내며 나는 끊임없이 외국인으로 사는 삶에 눈을 떴노라고 부연하기도 한다.

모임에 참석한 한 작가와의 대화도 그랬다. 짧은 내 소개를 마친 후 같은 질문을 역으로 던졌을 때, 해외 거주 경험이 적응을 부끄러워하는 듯한 그들의 반응에 깜짝 놀랐다. 나는 도리어 집이 어디라고 명확히 말할 수 있는 그들이 부러웠는데, 정작 그들에게 집은 부끄러운 무언가로 되어버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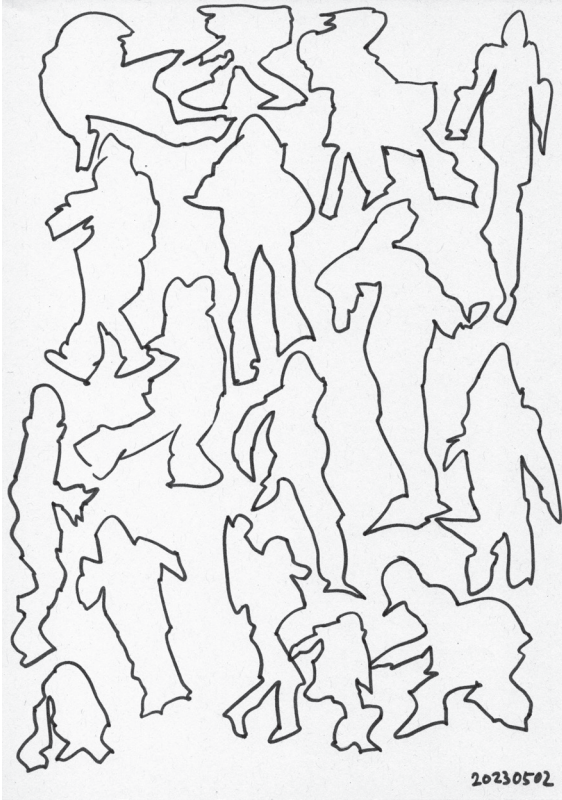
집이란 무엇인가?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이튿날 아침, 이번 여행의 동반자였던 책 『백색신화』에서 찾을 수 있었다. 저자 로버트 영은 레비나스가 자아를 잃지 않으면서도 “타자를 위한 존재”로서 인간이 가져야 할 타자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집”을 본다는 점을 주목했다. “타자를 위한 존재”의 주체성은 일종의 선물경제에서 작동한다. 내가 가진 뭔가를 세상에 기여하겠다는 마음을 안고 자아 밖의 세계를 향해 떠난다. 이로써 집은 돌아옴으로 인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에게 뭔가를 내어줌으로써 실현된다.

텐트하우스가 지향하는 바가 바로 이러한 집의 구성인지도 모른다. 이 콜렉티브는 다양한 국적의 작가, 기획자, 연구자와 디자이너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명의 리더에게 의사결정권이 집중되지 않으며, 결정을 내릴 때는 모두의 견해를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콜렉티브 내에서는 이론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방법으로 “버블”이라 부르는 여러 소그룹을 구성한다. 각 버블은 자율성을 가지는 동시에 다른 버블과 상호 의존한다. 버블의 일원은 자신이 가진 고유한 관점과 기술을 그룹에 기여하고, 서로를 신뢰하며, 책임을 분담한다. 버블 간에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관계가 유지된다.

현장에서 만난 이들은 서로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다. 돌보는 마음이 느껴졌다 할까. 손님을 잘 대접해 주었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 점도 물론 있었지만. 예를 들면, 스텐은 침구를 정리하고 캠핑 장소를 관리했고, 텐트하우스의 게스트 셰프는 예루살렘 아티초크 수프와 크바스를 곁들인 환상적인 저녁 식사를 차려 주었다. 메추는 디자인 분과를 위한 아침 식사로 달걀과 커피를 준비해주었다.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내게 다가오고 싶다고, 나와 대화하고 싶다고 말하는 듯한 그들의 진심이었다.

텐트하우스는 유동성과 안정성을 모두 함축한 이름이다. ‘텐트’라는 단어가 ‘펼쳐진’을 뜻하는 라틴어 동사에서 기원했음을 상기한다면, 이 콜렉티브는 넓게 펼쳐진 집으로 볼 수도 있다. 암벽등반가처럼, 세계 각지의 모퉁이와 틈새에 팔다리를 뻗어 매달릴 수 있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텐트하우스는 국적을 초월한 도시 유목민의 지붕과도 같다.

이승환(존 승환 리)



이승환(존 승환 리), <몸의 경계 연구 20230502-03>, 2023

종이에 잉크 브러쉬 펜, A4 사이즈

작가 제공

이 글과 드로잉은 제12회 모멘텀비엔날레 참여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2022년 11월에 Galleri F15에서 열렸던 모임에 대한 단상을 개인의 경험과 역사의 각도에서 기록한 것이다.



이승환(존 승환 리)은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랐다. 2002년에 미국으로 이주했고, 다시 2018년에 베를린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승환의 작업의 중심에는 춤, 드로잉, 독서와 글쓰기가 있다. 오랜 기간 춤, 특히 비보잉을 연마한 경험을 바탕으로 발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미국 시민임에도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해야 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은 언어에 관한 예술적 탐구로 이어졌고, 더 나아가 세계에 대한 몸의 경험에서 비롯된 춤, 드로잉, 글쓰기의 기원에 대한

이론과 그것들의 신체적 관계에 대해 탐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철학 팟캐스트와 출판 작업을 병행하는 Paper Renaissance의 작업에 기여하며 많은 영감을 얻은 저자는, 비평이론과 같이 의식적인 이해의 경계에 선 언어에 노출되는 상황을 자기 초월의 경험으로 받아들이는다. 일상생활의 혁명 이론에 감명받아 독서 모임을 운영 중이다. 비평이론 연구 외에도 동서양과 남북한을 비교역사학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연구도 하고 있다. 저자의 작품은 베를린, 라이프치히, 뉴욕의 여러 갤러리와 기관에서 전시된 바 있다.

대사관 프로젝트: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에 관하여

(3부로 구성된 악장의 제1부)

그것은 전자적이고, 탐색적이며,
피할 수 없는 조우였다.

우리는 ... 랍니다. 노르웨이가 말한다.

우리는 ... 를 바라요.

어떠세요?

좋아요, 싱가포르가 말한다.

그렇게 하죠!

지금요?

그리하여 계획할 수 없는 일이 시작됐다.

즉흥적으로, 실험적으로, 샘솟듯이.

이 에세이는 새로운 외교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풀어내는 시도이다. 따라야 할 전례도 없고, 어떠한 사안도 승인을 요구하지 않으며, 주장할 수 있는 면책특권도 없는 외교다. 대신 기존 양식에 대해 의문을 풀어야 하고, 그 의문을 실행으로 연결해야 하며, 그 실행을 잘 이끌어줄 필요가 있는 외교다. 이처럼 실행 중심의 연구와 체계적 학습을 실현한다는 일념으로 라살르예술대학교의 맥널리미술대학은 멀리 오슬로에서 텐트하우스가 보내온 초대에 응했다. 그들의 제안은 《모이기 위해 함께 하는(Together as to gather)》을 주제로 하는 이번 제12회 모네펜비엔날레에서 비엔날레에 관한 통념과 기존의 실행 양식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트랜스-로컬한 레시피를 고민하는 저녁 자리를 마련하자라는 것이었다.

싱가포르에서 여러 답문을 만찬의 주제로 올리는 일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기발한 발상이다.

첫째로 문화와 경제성 차원에서 싱가포르는 음식이 맛있고 다양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서민 먹거리의 전통을 계승하는 푸드코트에서부터 문화간 융합의 결과로 탄생한 페라나칸과 유라시아 요리에 이르기까지 싱가포르의

풍성한 음식 문화 현장에서 말은 힘을 잃는다. 먹는 속도를 내라고 재촉할 필요는 없지만, 천천히 먹으라 한들 뜻대로 될 리 없다. 싱가포르에서는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재정 위기와 식민 지배의 긴장을 당연하다는 듯이 먹는 것으로 풀었다(여유가 있을만큼 코스 요리로...).

둘째로 교육과 정치 차원에서 보면 서로의 사상이나 아이디어를 애써 소화하지 않아도 되는 풍토가 자리 잡았다. 싱가포르에서는 차이를 근본적으로 좁히는 대신, 정책이나 규범의 준수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우회해 버리는 것이 효율적으로 여겨진다. 다수가 공리주의에 입각한 통치를 익숙하게 여기고 신뢰하다 보니, 굳이 토론할 필요도 오역의 가능성도 없다. 이런 환경에서는 각자의 생각을 꿀꺽 삼키고 입을 다무는 편이 편리하다. 나만의 고유한 어조와 음색에 귀 기울이면서 저항의 목소리를 내는 법을 연습하는 것은 헛되다.

그러므로 이런 발상은 현대미술을 실천하는 교육기관의 실험적인 부엌에서 더욱 추구해야 할 것일지도 모른다.



씨서 푸 박사는 정치학자이자 '정치적 예술 이니셔티브'의 공동창설자이다. 이 모임은 인간이 기술과 예술을 매개로 상호작용하고 정치적인 사상과 실천을 구성해 나가는 방식에 주목한다. 홍콩에서 태어난 푸 박사는 아시아, 유럽, 영국, 북미 등지 유수의 문화·교육기관에서 연구, 강의, 큐레이션 및 퍼포먼스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가장 최근에는 캐나다의 에밀리 카 예술디자인 대학교의 문화 커뮤니티 대학 학장을 역임한 바 있다. 저자가 집필한 문화적 생산과 법을 주제로 한 교과서가 곧 출간될 예정이며, 현재는 침묵의 정치학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논문을 저술 중이다. 단행본으로 출판될 동 논문에서 저자는 예술적 실천 사례를 바탕으로 침묵을 긍정적인 정치 개념으로 부활시키고자 한다. 푸 박사는 예술적 실행에 기반한 연구를 통해 관계미학과 탈식민적 실천을 탐구하는 한편, 체험적이고 변혁적인 조직 디자인, 창조적이고, 비평적이며, 공동체적인 문화적 실천을 통한 제도 구축 실험을 지속하고 있다.

씨시 푸 + 왕 시 지에



왕 시 지에, <공명>, 2023
아연 코팅 금속판, 검정 에나멜 페인트, 테레빈유,
에폭시 라커, 20.3 × 29 cm
왕 시 지에 제공

왕 시 지에는 모멘텀비엔날레와 그날의 저녁 모임에서 선보인 시도와 주제의식을 통해, 참석자들 간의 대화와 공감을 따라 흐르는 유동성과 무형의 에너지를 표현하고자 했다. 작품은 음식과 접시, 다소 지저분하긴 하지만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완성된 요리의 잔재, 너나없이 깔고 앉았던 애들린의 작품, 아이디어와 공감을 엮어 만든 시각적 콜라주이자 테피스트리인 것처럼 배열되어 있었던 카펫 등을 둘러싼 작가의 단상을 토대로 완성되었다.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왕 시 지에는 몸, 계급, 공간과 일상 사이의 교차점들을 탐구한다. 주로 발견된 사물과 재료를 사용한 설치 및 조소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친 듯하면서도 시적인 그의 작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과 그것을 통제하려는 힘에 주목하게 한다.

동시에 작가는 노동의 신체성과 그것이 인간의 몸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한다. 이를테면, 산업용 재료나 철과 같은 소재를 예기치 않은 맥락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폭력, 고난 그리고 그 안에서 꽃피는 회복력을 주제로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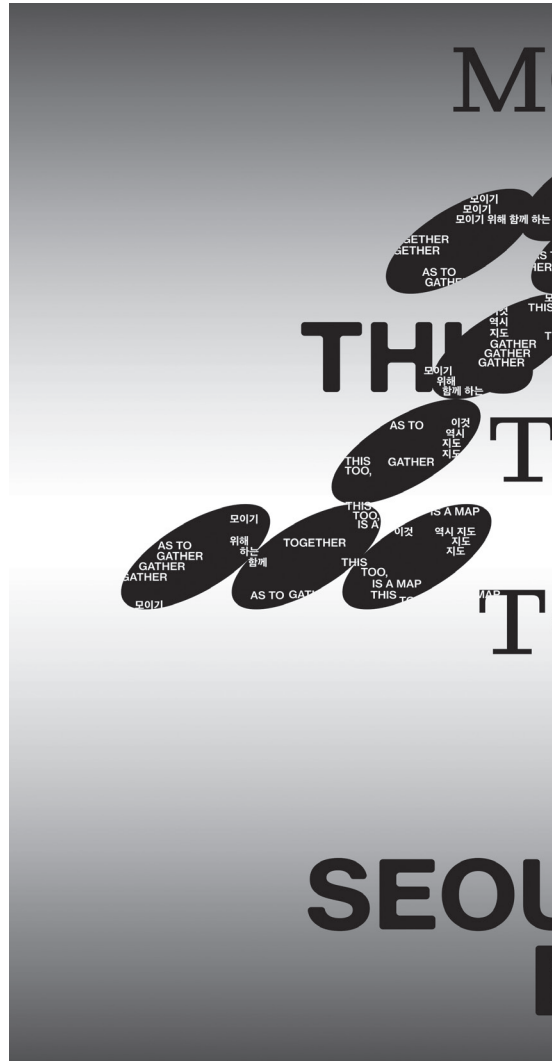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SEOUL MEDIACITY BIENNALE

발행처 서울시립미술관
발행인 최은주
편집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글 씨시 푸 + 왕 시 지에, 이문석,
이승환(존 승환 리)
번역 김하연, 이수진
영문감수 앤디 세인트 루이스
디자인 마바사(안마노, 김지섭)
인쇄, 제작 세걸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소식지 온라인 구독은
아래 QR코드로 신청해주세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중구 덕수궁길 61
contact@mediacityseoul.kr
mediacityseoul.kr



시리 리 린스크룩과 아만다-리 콜베리,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THIS TOO, IS A MAP)》
아이덴티티(디자인: 배소현)를 적용한 제12회 모멘텀비엔날레
《모이기 위해 함께 하는(Together as to gather)》 그래픽 버블, 2023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소식지
6월호 『외교술』

외교술로서의 비엔날레
집짓기로서의 모델링
대사관 프로젝트: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에 관하여
(3부로 구성된 약장의 제1부)

사리 리 인스크립트 아연다-리 콜베리,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THIS TOO, IS A MAP)》
아이엔티디(디저인: 배스킨)를 직공한 제12회 모던함비엔날레
《모이기 위해 함께 하는(Together as to gather)》 그래픽 비주얼, 2023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SEOUL MEDIACITY BIENNALE

MOMENTUM

THIS TOO, IS A MAP TOGETHER, AS TO GATHER

SEOUL MEDIA CITY BIENNALE